

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남성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

- 그들은 과연 여성주민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? -

곽 인 숙(우석대학교 교수)

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의 모색을 위한 북유럽 국가의 노인용 코하우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생각됩니다. 물론 연구대상이 된 국가와 우리 나라와의 사회문화적인 거시환경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고령사회를 맞아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주거대안마련이 시급한 우리에게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.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생활경험을 가지고 있고, 신체적 능력이 쇠퇴해가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사는 코하우징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우리사회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.

전반적인 논문의 구성과 통계적인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이주동기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아주 재미있는 접근으로 생각되어집니다. 단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1) p.8의 분석과정에서 연령을 더해본..., 배우자유무를 더해본..., 건강상태와 지역변수를 더해본..., 이라는 표현보다는 연령, 배우자유무, 건강상태, 지역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의...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.
- 2) p.8의 <배우자 유무를 더해 본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>의 분석에서는 배우자 사망이라는 이주 동기는 이미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더 높게 응답했을 것이므로 “배우자가 사망해서라는 이주 동기는 예상했듯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남성주민이나 여성주민보다 혼자 사는 남성주민과 여성주민에게 더 많았다.”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분석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.
- 3) 이주동기와 코하우징에서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남녀차이를 보고자 한 연구인데 이주동기는 세밀하게 조사된 반면 코하우징에서의 생활만족도는 어떤 측면에서 남녀 누가 더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.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새로운 노인의 주거대안 형성시 기초자료로서 디자인이나 기획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
- 4) 결론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(예를 들면 남녀 노인의 이주동기의 차이를 통해 남성을 위한 코하우징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, 여성을 위한 코하우징에 어떤 면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 등을 추가시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)